

朴·文 2강 구도 흔들 '넘버3'는 누구

■ 새정치, 오늘 전대 예비경선 관심 집중

당권경쟁 마지막 한장 놓고 박주선·이인영 각축전

본선서 막판 단일화 모색 가능성에 결과 주목

7일 실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 정권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예비경선은 당 대표 후보자 5명 가운데 3명, 최고위원 후보자 9명 중 8명의 본선 진출자를 चु린다. 선거인단은 임시 당 대표인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비대위원), 우윤근 원내대표, 당 고문,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구청장, 시장, 군수 등 378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됐다.

선거인단은 대표 예선에서 1표, 최고위원 예선에서 3표를 각각 행사한다. 대표 경선에는 박주선,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조경태(이상 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중앙위원의 계파별 세력 분포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 진영에서는 서로 과반 득표를 자신하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나머지 당권 주자 3명 가운데 누가 마지막 한 장의 본선형 티켓을 따낼 것인가다.

일단 박주선 의원과 이인영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남의 조경태 후보가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의원은 민집모(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등 비노(노무현), 중도파의 단일 후보인데다 호남 지지세도 만만찮다. 이 의원은 당내

'86그룹'(60년대생, 80년대 운동권)과 민평련 진영, 충청권의 고정표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유일한 영남 대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도 영남과 비노 진영의 지지를 바탕으로 2013년 전당대회 지도부 입성에 이어 컷오프 통과라는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선 누가 본선에 올라도 문, 박 의원을 위협할 다크호스로 부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반노 성향인 박주선, 조경태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본선에 오른다면 박지원 의원과 막판 단일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인영 의원은 "다른 분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이유로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판세에 따라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최고위원 예선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을 비롯, 이목희·주승용·유승희·정정래·박우섭·노영관·문병호·오영식(이상 기호순) 후보가 나섰다. 예선 투·개표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주관하며, 후보자 득표수 등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지원, 박주선, 주승용 의원 등 지역 주자들의 컷오프 통과 여부가 관심사"라며 "컷오프가 끝나면 한 발 물러서 있었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선호 후보들의 물 밑 지원에 나서면서 경쟁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남아...' 감독과 대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이 6일 CGV 광주 상무점에서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과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이윤석·황주홍 출마 선언

새정치 전남도당위원장 경선 '2파전'



이윤석 의원 (왼쪽) 황주홍 의원 (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이 이윤석, 황주홍 의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들은 6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하며 기싸움에 들어갔다.

현 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도당위원장에서 2억여원에 불과했던 도당의 재정을 당원 재정비와 효율적 살림살이를 통해 15억원으로 만들었다"며 "도당 위원장은 도당의 무게를 감당할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세력과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공천과정이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민주당 후보들을 지켜냈다"며 "안철수 측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반대 테이블에 앉았던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전남도당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황 의원을 겨냥했다.

오후 기자회견을 연 황 의원은 "위기에 처한 중앙당을 구하려던 당의 뿌리이자 젖줄인 전남도당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 도당 재정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유리알처럼 공개하는 등 투명한 도당 운영의 완벽한 표본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형식이 그치는 도당의 각급 위원회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한 점 의혹도, 한 치 왜곡·불공평도 없이, 오직 공명정대한 도당 건설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은 오는 18일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리며, 권리당원 50% ARS 여론조사와 대의원 50% 현장투표가 반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배상·보상 특별법' 합의

여야, 12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지역인 진도군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이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국가가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국가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위로지원금은 125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진도지역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본 어업인, 수산물 생산감소 및 어업활동 실기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이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전시의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당권경쟁 '文 대 非文' 공방 갈수록 격화

비문, '대선패배책임론' '당권·대권분리론' 내세워 문 압박

문,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해줄 것"... '네거티브' 자제 호소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대선패배 책임론'과 '당권·대권 분리론' 등을 내세워 압박을 계속하자 문 후보는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등 '문재인 대비(非) 문재인'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주자는 당권보다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당권·대권 분리론을 연일 부각시켰다.

특히 박 후보는 앞서 문 후보가 광주 무등산 산행에서 "필성부는 자식을 밀어달라"며 지지

를 호소한 것을 겨냥, "필성부는 자식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하고, 당 대표는 그 필성부부 자식을 키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대구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나 전대 공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주선 후보도 문 후보를 '망공회향' 사태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빗대며 "문재인 때리기"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조 전 부사장의 경우에서 보듯, 국민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요구한다"며 "대선·총선 패배에 책임질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본인과 이인영·조경태 후보

에 대해 "진흙 속의 진주라고 평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른 후보들을 향해 비판을 멈추자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해 국민이 외면하게 만드는 것은 당을 살리겠다는 말씀과는 모순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또 "지금 국민은 압도적으로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호남 민심도 같다"면서 "당 동지들이 그런 민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를 방문

해 '김대중 대통령 탄신 9주년 기념문화제'에서 특강을 하며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권 교체할 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자 나의 책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강연에 이어 이날 오후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다량영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과 대담하고, CGV 광주 상무점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독립영화의 현실을 극복하고 큰 흥행을 만들어낸 진모영 감독처럼, 본인도 당대표가 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과 위안이 되는 정당, 국민의 아픔을 이루면서 줄 수 있는 힐링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충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형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남가발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스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